

“구아바 가공식품으로 지역대표 상품 목표”

아열대 작물 메카 전남 재배 농가 가다

(3)정은희 장성 빈스구아바농장 대표

생산량 90% 인터넷 통해 직거래 판매
자체 공장 운영...구아바 잼·청 등 생산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한 빈스구아바 농장에서는 싱싱한 구아바들이 자라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은 생소한 작물인 구아바를 키우고 있는 정은희(52) 빈스구아바농장대표는 열매 생산과 함께 구아바 잼·청 등 가공식품도 만들어 판매하고



빈스구아바농장에서 생산한 구아바잼.

있다. 정 대표는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들이 아토피 등 건강문제를 겪자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 귀농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장성에 거주하며 1년여간의 시골살이를 거쳐 비염과 아토피에 좋은 구아바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2015년부터 농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빈스구아바농장에서는 약 2천314㎡(7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핑크 구아바와 흰 구아바를 키우고 있다. 기현 구아바라는 품종이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아바의 겉질 안 색깔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구아바는 3-5년정도 자란 모목을 심어 3년 정도 키워야 열매를 생산할 수 있



정은희 빈스구아바농장 대표가 구아바의 꽃대를 보여주며 구아바 재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현지 기자



핑크구아바와 흰구아바.

다. 4월 말부터 꽃이 필 준비를 시작해 6월에 개화하고 9-11월에 수확한다. 온도는 여름에는 30-36℃, 겨울은 5℃ 아래

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두 종류의 구아바 모두 생과나 주스 등으로 주로 먹을 수 있다”며 “외국에서는 비완숙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판매할 때 완숙, 비완숙으로 구분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의 90%는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으며 신선함 유지를 위해 당일 수확,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구아바가 택배로 배송되는 동안 너무 익어버리거나 신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으로 직접 택배를 보내보는 등 확인을 통해 품질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구아바 잼·청 등은 2019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현재는 자체 공장을 운영하며 연간 400kg정도를 생산, 온라인 판매와 함께 백화점, 로컬푸드직매장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지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초반에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도 겪었다.

정 대표는 “외국에서 구아바를 접해본 소비자들은 먼저 찾아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처음 구아바를 보는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농장을 시작할 때부터 블로그를 운영해 구아바가 자라는 과정 등 소식을 알리고

홍보했으며 현재는 수확시기를 기다리는 단골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구아바 농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현재는 아열대작물이 많이 알려져 소비자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향후 목표는 가공에 집중해 구아바 음료 등 여러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금처럼 주위 농가들이 재배할 딸기, 사과 등 지역의 작물을 활용해 잼 등을 가공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며 “또 구아바로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장성 대표 상품이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지 기자

전남도·농관원, 로컬푸드 안전생산 협업 강화

워크숍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 논의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로컬푸드 생산·유통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나주 듀플렉스 호텔에서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공동 워크숍을 열어 로컬푸드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선 ▲로컬푸드 안전관리 업무 협업 추진 체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자체와 농관원의 역할 ▲부적합 시 조치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PLS)와 농산물 부적합 조치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이뤄졌다.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는 농약 성분 등록과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 관리하는 제도다.

방도혁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컬푸드의 안전성 강화는 지역의 농업



과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농협광주본부-대촌농협, ‘행복가득 장수사진’ 촬영

농업인 문화복지사업 활성화 차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3일 ‘남구 지척동에 위치한 대촌농협에서 관내 농촌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가득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후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촌농협 관내 100명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문화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한재규 노조위원장,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10여명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머리손질, 의상준비 등을 도왔다.



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촬영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어르신은 “곱게 화장도 해주고 예쁜 한복도 준비해 사진을 찍어주니 한층 더 젊어진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촌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행복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매일 밤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단체다.

/김현지 기자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①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는 분
- ②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 ③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지치신 분
- ④ 기초 건강 및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
- ⑤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직장인, 청소년, 수험생, 노년층

1개월분(30포) : 148,000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 보람 약품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나은

시 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